



화장품 (Positive)

한국 화장품은 호황입니다.

▶ Analyst 한유정 yujung.han@hanwha.com 3772-7693

한국 브랜드를 보고 배우는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주요 브랜드사인 에스티로더와 로레알은 시장 대응 속도 및 제품 개발 가속화 등의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외부 생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00여 년의 역사로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Legacy 브랜드사 마저 한국 브랜드의 혁신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브랜드의 구조적 성장

미국의 화장품 수입액 중 한국 화장품 비중은 2019년 10.1%에서 2024년 22.4%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도 23.8%에 달하며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4.2%에서 7.1%로 축소되었고, 프랑스는 15%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다. 불과 5~6년 만에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에서 주류 수입국이 되었다는 점, 비중 확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경로는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 초기에는 TikTok 등에서 바이럴을 일으키며 인지도를 확보하고, Amazon과 같은 대형 온라인 채널에서 트랙 레코드를 구축한다. 이후 Ulta, Sephora, Costco 등 주류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면서 판매망을 확장하고, 동남아·중동·유럽으로 확장하며 추가 성장을 이뤄낸다. 한국 브랜드는 대형 온라인 채널과 글로벌 오프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이다. 여기에 한국 인바운드 증가는 현재의 성장에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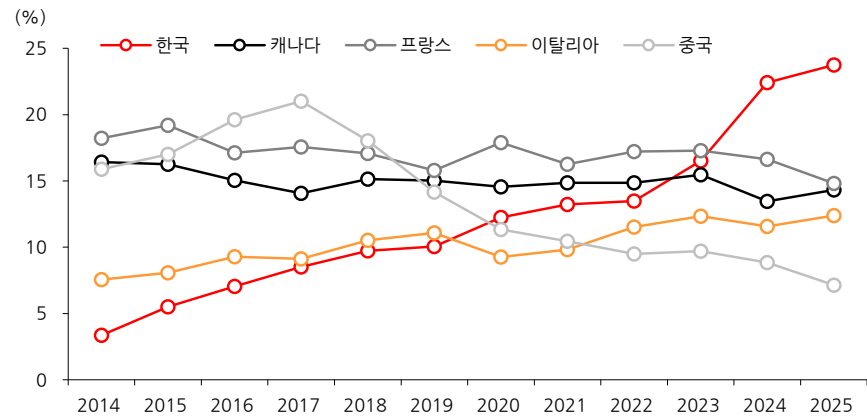
방한 외국인의 역대 최대치

2025년 방한 외국인 수는 8월 누적 기준 1,251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넘어, 이제는 과거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2024년 방한 중국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은 22만명으로 9.7% 비중을 불과하다. 최대 기록이었던 2016년(208만명) 대비 89.6%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무비자 한국 입국이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3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이후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도는 높아졌다. 이에 향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호황 맞이한 한국 화장품

외국인의 소비액 중 식당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화장품이다. 실제로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5월 한국 방문 외국인 중 올리브영 방문 고객 비중은 82.7%에 달한다. 올리브영의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1조 4,619억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점포 수는 2.9% 증가에 그쳤으나 매출 성장률은 21.0%로 점포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내국인 중심의 온라인 매출 성장과 외국인 트래픽 증가가 견인한 성과다. 외국인의 구매 경험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접한 소비자들은 귀국 후에도 TikTok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 화장품 관련 콘텐츠를 접하고, Google 검색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Amazon 등에서 손쉽게 재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방문-온라인 노출-재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내수 호실적 그리고 글로벌 매출 확대로 확인 가능할 것이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다.

[그림1] 미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비중



주1: 금액 기준, 주2: 2025년은 1~7월 누적 기준, 자료: KIT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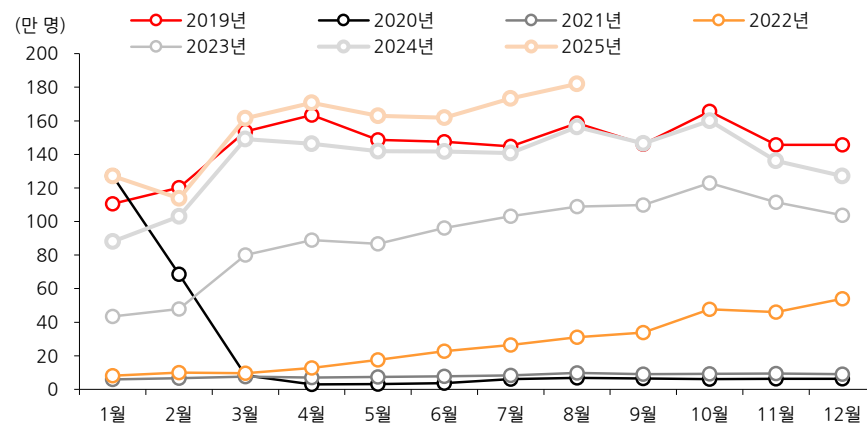
[표1] 연간 방한 중국관광객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3	2024
방한 중국관광객	2,220	2,836	4,326	6,126	5,984	8,067	4,169	4,789	6,023	686	2,019	2,218
단체관광객	478	897	1,120	1,897	1,437	2,084	273	194	708	43	68	216
단체관광객 비중	21.6	31.6	25.9	31.0	24.0	25.8	6.5	4.1	11.8	7.5	3.6	9.7
비고	정상적인 시장 상황				메르스 발생	-	방한 중국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 ('17.3~)				코로나 19 팬데믹 ('20~)	방한관광 재개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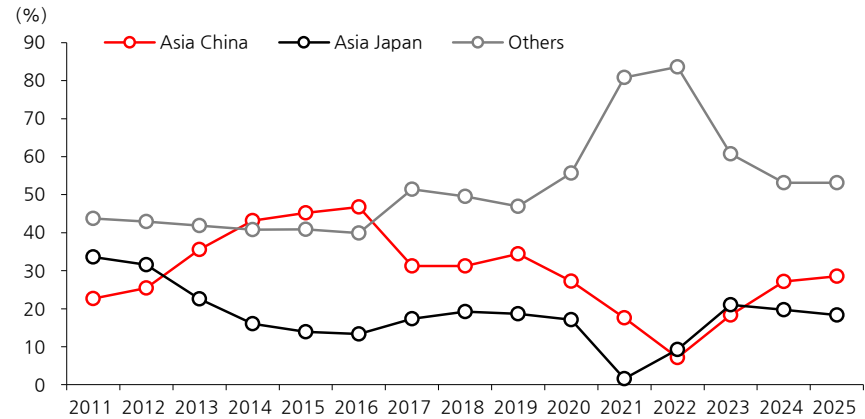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한국 전체 입국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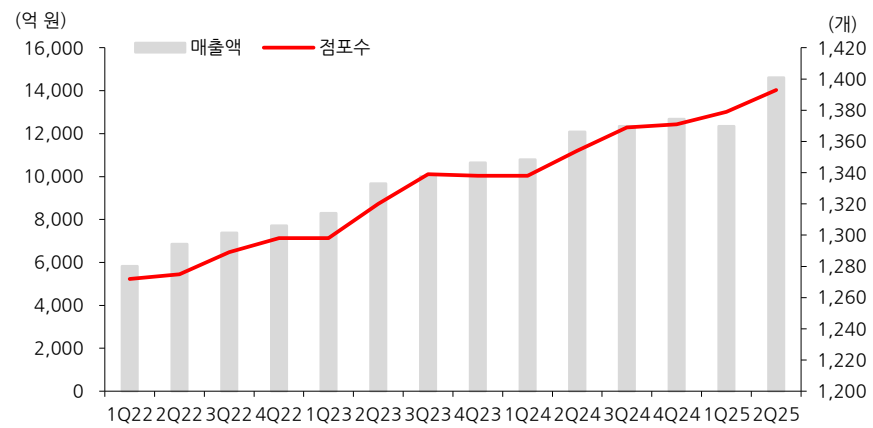
자료: CEI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한국 입국자 중 국적별 비중



주: 2025년은 1~8월 누적 기준, 자료: CEI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올리브영 분기 매출 및 점포 수 추이



자료: CJ,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한국 방문 외국인의 업종별 결제 비중

순위	업종 분류	'23 년 구성비	'24 년 구성비	결제액 증가율(YoY)
1	의료	2.7%	4.1%	204%
2	약세서리	2.7%	3.1%	131%
3	화장품	14.6%	15.6%	112%
4	편의점	6.1%	6.3%	103%
5	커피/음료	7.0%	7.1%	101%
6	일반	8.2%	8.2%	98%
7	마트/슈퍼마켓	6.7%	6.5%	94%
8	식당	19.3%	18.4%	90%
9	의류	15.5%	13.9%	78%
10	쇼핑/면세	7.5%	6.7%	77%

주: 2024년 기준 결제 100억원 이상인 업종, 자료: 오렌지스퀘어,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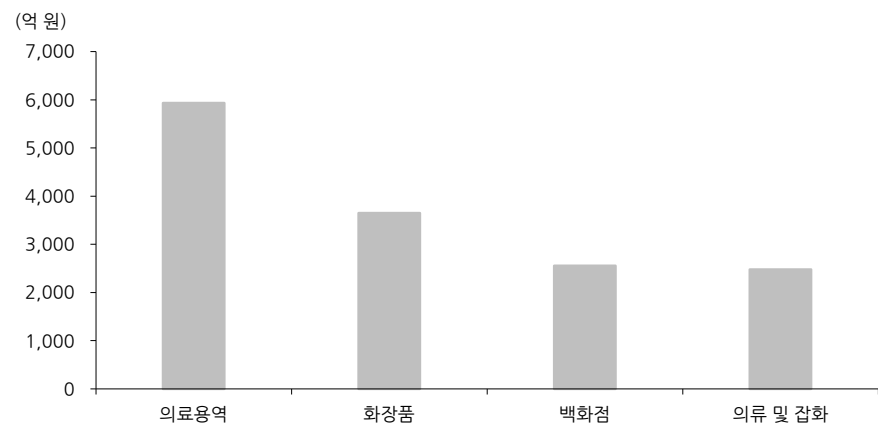
[표3] 글로벌텍스프리가 공개한 지역별 외국인 소비액 순위

(단위: 억 원)

	영등·남대문		강남		홍대		압구정·청담		제주	
1	화장품	1,558	의료 용역	2,782	화장품	674	의료 용역	941	화장품	326
2	백화점	1,493	백화점	614	의료 용역	640	의류· 전화	440	의료 용역	179
3	의료 용역	1,005	의류· 잡화	497	의류· 잡화	369	백화점	191	의류· 잡화	151
4	의류· 전화	591	시계· 주얼리	236	안경	54	시계· 주얼리	90	마트	30
5	마트	104	화장품	202	스포츠 용품	41	화장품	73	스포츠 용품	23

주: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글로벌텍스프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2025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텍스프리의 외국인 소비액



자료: 글로벌텍스프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메디큐브/티르티르의 미국 LA/뉴욕 팝업 스토어



자료: 에이피알, 티르티르,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 년 09 월 30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됐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유정)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거부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06 월 30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4%	9.6%	0.0%	100.0%